

“If You Love Me, Guard My Commands”

Core Passage — Yochanan 14:9–20

Yehoshua’s words move through three closely connected themes: **seeing, knowing, and obeying**. To see Yehoshua rightly is to recognize the Father’s work revealed through him. To know him is not merely intellectual recognition; it produces a life of faithfulness. This reaches its clearest expression in verse 15: “**If you love Me, you shall guard My commands.**”

1. Torah Layer — Love Is Revealed Through Obedience

Yochanan 14:15 should be heard against the language of the Torah. Devarim repeatedly joins **love for YHWH** with **guarding His commandments**: “You shall love YHWH your Elohim and guard His charge, His laws, His right-rulings, and His commands always” (Deut. 11:1). Biblical love is therefore more than emotion. Love becomes visible through covenant faithfulness.

The important word is “**guard.**” Yehoshua does not present obedience as an attempt to earn love. Rather, obedience is the fruit of love already present. The Torah follows the same pattern: YHWH first redeems Yisrael, then teaches redeemed Yisrael how to walk.

2. Prophetic Layer — The Spirit Within

핵심 본문 — 요한복음 14:9–20

예호수아의 말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세 가지 주제, 곧 **보는 것, 아는 것, 순종하는 것**을 따라 전개된다. 예호수아를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아버지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다. 그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충성된 삶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15 절의 말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15 은 토라의 언어를 배경으로 들어야 한다. 신명기는 반복해서 **야훼를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연결한다. “그러므로 네 엘로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신 11:1). 그러므로 성경적인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이다. 사랑은 언약에 대한 충성을 통해 눈에 보이게 된다.

중요한 단어는 ***“지키다”***이다. 예호수아는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순종은 이미 존재하는 사랑이 맺는 열매이다. 토라도 같은 순서를 보여 준다. 야훼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 후에 구속 받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신다.

Yehoshua then promises “another Helper,” the **Spirit of Truth** (Yochanan 14:16–17). This echoes the prophetic promise that YHWH would transform His people inwardly. Ezekiel declares: “**I put My Spirit within you. And I shall cause you to walk in My laws and guard My right-rulings and shall do them**” (Ezek. 36:27).

The Spirit therefore does not lead away from obedience. The prophetic purpose of the Spirit is precisely the opposite: YHWH places His Spirit within His people so that His instruction becomes their lived reality.

3. Hidden Connection — “I Will Not Leave You Orphans”

Yehoshua says, “**I shall not leave you orphans; I am coming to you**” (Yochanan 14:18). The disciples are approaching a moment when what they can physically see will disappear. Yet absence does not mean abandonment.

This is where the promise of Ruach HaKodesh becomes essential. Previously they walked beside their teacher; now the **Ruach of Truth would dwell within them**. The movement is from external presence toward internalized instruction and presence.

4. The Pearl — Love → Guard → Spirit → Abiding

The hidden pearl of Yochanan 14:9–20 is the sequence connecting **love, obedience, Ruach HaKodesh, and abiding presence**.

이어서 예호수아는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약속한다(요 14:16–17). 이것은 야훼께서 그분의 백성을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시겠다는 예언적 약속을 떠올리게 한다. 에스겔은 말한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7).

그러므로 성령은 순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 예언서에서 성령의 목적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야훼께서는 자신의 영을 백성 가운데 두셔서 그분의 가르침이 그들의 실제 삶이 되게 하신다.

예호수아는 말씀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8). 제자들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분이 사라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령의 약속이 중요해진다. 이전에는 그들이 스승 곁에서 걸었지만, 이제 **진리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된다**. 외적인 임재에서 내면화된 가르침과 임재로 옮겨 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4:9–20 에 숨겨진 진주는 **사랑, 순종, 성령, 그리고 내주하는 임재**를 연결하는 흐름이다.

Love produces the desire to **guard** the commandments. The **Ruach of Truth** enables covenant truth to live within the disciple. And through that indwelling presence, the disciple discovers that he has not been abandoned.

This follows the Torah and Prophets remarkably closely: **love YHWH → guard His commandments → receive His Spirit within → walk in His ways.**

5. Final Synthesis

Yochanan 14 is not describing love as sentiment but **covenant relationship**. “If you love Me” is followed immediately by “guard My commands.” Then comes the promise of the Spirit of Truth. The pattern recalls Devarim and Ezekiel: genuine love moves toward obedience, while the Spirit transforms obedience from merely external requirement into an inward walk.

The deepest evidence of love is not what the mouth declares, but what the life guards.

Mussar

Do not ask only, “Do I love YHWH?” Ask, “What does my life show that I guard because I love Him?” Love becomes tangible when His instruction becomes precious enough to protect, remember, and practice.

사랑은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낳는다. 진리의 영은 언약의 진리가 제자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임재를 통해 제자는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이것은 토라와 예언서의 흐름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야훼를 사랑하라 →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 그분의 영이 안에 거하시게 하라 → 그분의 길로 걸으라.**

요한복음 14 장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말씀 바로 뒤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진리의 영에 대한 약속이 나온다. 이 흐름은 신명기와 에스겔을 떠올리게 한다. 참된 사랑은 순종으로 나아가며, 성령은 순종을 단순한 외적 의무에서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삶으로 변화시킨다.

사랑의 가장 깊은 증거는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아니라, 삶으로 무엇을 지키는가에 있다.

“나는 야훼를 사랑하는가?”라고만 묻지 말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물으라. 그분의 가르침이 지키고, 기억하고, 행할 만큼 귀중해질 때 사랑은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The Spirit of Truth is not given merely so that we may **feel YHWH's presence**, but so that we may **walk faithfully in His truth**.

진리의 영은 단지 **야훼의 임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걷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다.

The Pearl

“If you love Me, you shall guard My commands.” — Yochanan 14:15

Love that does not shape the walk remains only sentiment.

Love that guards the word becomes covenant faithfulness.

**삶의 걸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랑은 감정에 머물지만,
말씀을 지키는 사랑은 언약의 신실함이 된다.**